환경복지관련 건물공사 활발

(서울) 복지회관 기초공사 (수원) 오수종말처리장 착공

하내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건설부에 따르면 정경대 증축을 맡은 동국종합건설은 5월 초순에 골조공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 미장, 창, 칸막이 등 마감 공사를 진행중이다. 정경대는 방학중 공사가 완료돼 2학기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건설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한 체과대학 진입로 동행편리를 위한 치대 후면 도로포장 및 석축공사도 공정이 순조로와 6월말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회관 신축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암반 돌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국종합건설은 암반을 모두 제거, 3개월에 걸친 토공사를 끝내고 기초 공사에 착수했다. 가정대 공사를 따낸 오진산업은 이번 주에 공사 허가가 나오는대로 바로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캠퍼스 관리과는 외대식당 뒷편에 학생식당과 공대, 체대, 외대, 국선관의 생활 하수를 처리할 오수처리장의 건설공사를 지난 5월초 외대식당 뒷편에 착공하였다.

이번 공사는 총 공사비 8억4천만원에 환경회사인 한성크린텍에 수주되었고 1·2차 공개입찰결에 대상자가 나서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11월 30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1일 9백80톤의 생활오수처리가 가능해 진다. 이와함께 기존 공대 폐수 처리장의 용량확대공사가 아울러 실시되고 있다.

기존의 부패식 정화방법에서 회전원판식으로 정화방법을 개선시킬 이번 공사가 마무리 되면 기존의 1일 30톤의 폐수처리규모가 4시간당 45톤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관리과는 천문대 조경공사가 오는 15일경 완료된다고 밝혔다. 천문대 완공 후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되던 조경공사는 동절기를 맞아 단절되었다가 지난 3월부터 재개되었고 발파석 조경공사를 이미 마무리하고 잔일로 포장공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관리과는 93년도 하계방학중 각 건물의 보수, 방역 및 도색, 등록금 합의서상의 블라인더 선치, 정수기 설치 등 각종시설확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화, 김중석 記者)

수원 통일노래한마당예선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7월중 통일노래한마당 본교 예선전을 갖는다.

오는 8월 중에 있을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용성지역 예선 참가팀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통일운동을 정치적·대중적으로 전개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창작곡, 개사곡, 가요, 민요, 시 등 장르에는 제한이 없고 참가신청은 각 단대 문화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일정과 시상내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학과평가제 준비 90% 완료

(수원) 30일까지 최종준비 오는 7월15일 심사

수원캠퍼스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학과평가제의 심사가 오는 7월15일 있게 된다.

화학과 3명, 기계과 3명 등 총 6명의 심사진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교수관계, 시설실비, 행·재정지원의 심사를 실제답사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사를 위해 기계과와 화학과는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지난 5일로서 심사준비를 1차로 완료했고, 오는 6월30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계과의 경우 Universal Testing Machine 등 81종류의 교육용 기자재 신규도입을 90% 정도 완료했고, 교수연구실 조성 등 시설 설비공사는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학과는 1백56종의 교육용 기자재 신규도입을 90% 완료했고, 실험실 설비보수 등 공사의 마무리도 90% 정도 진행되었다.

양과는 현재까지 각각 3회에 걸친 자체평가를 마친 상태이며, 부족한 사안을 계속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배경석군 아시아복싱대회서 3위

총장기 태권도 대회 28일부터 개최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쥬니어복싱선수권대회'의 라이트플라이급에 출전한 배경석(체과대 체육·1)군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제5회 경희대학교 총장기타기 전국남녀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학과 학생회주최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국고교우수선수선발팀과 태권도학과생의 경기운영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본행사는 태권도의 지역사회저변확대를 위해 지난해까지는 서울 국기원에서 실시하던 것을 수원으로 옮겨 행사를 치루게 되었다.

참가신청은 9일까지 태권도학과 사무실과 학생회로 하면 되고 자격제한은 없다.

또한, 5월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력비경기장(오류동)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종별력비선수권대회'에서 본교 력비팀이 대학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31일, 본교 력비팀은 연세대학과의 결승경기에서 19대3(전반 6대 3, 후반 13대 0)으로 패하여 준우승에 머물렀다.

전국 전자계산소장(협) 춘계총회

전국대학 전자계산소장 협의회의 '춘계 총회 및 세미나'가 오는 18·19일 양일간 수원캠퍼스 체육교육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전국 1백11개 대학의 전자계산소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하게 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전산망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조동호 본교 전산소장의 강연 등 세미나와 참가자들의 본교 전산소 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 교내 차량 출입증 발급

수원캠퍼스 학생처는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교내차량출입증을 발급한다.

이번 제도는 등·하교, 학사업무이외에 교내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내의 교통체증과 사고위험부담가중 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학내출입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되며, 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교문에서 통제를 받는다.

스티커 발부자격은 승용차를 보유하여 운행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학생증 사본 1부와 가족소유차량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가하여 학생처 취업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참교육실현을 위한 전국교사대회

교육개혁과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교조 결성 4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해직교사, 현직교사, 전국사범대학·교육대학생 등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본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교사 대회에서 전교조는 1천7백여 해직교사의 조건없는 원상복직, 전교조 인정 등을 촉구했다.

(송현주 記者)

취재노트

◇…새 나랏님 백일잔치

언론 호랑이의 유능한 조련사요, 개혁의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새대통령이 백일 맞는 날.

소문난 잔치, 얼마나 먹을 것이 많나, 노트쟈 인왕산 기슭을 두리번두리번.

답을 장식할 플래쉬가 쏭악소리되어 터질 때 멀지않은 청량동 재개발 지구에선 민생고가 곡소리되어 하늘을 치네.

연막작전같은 개혁으로 호랑이 눈에 모래 들어가니 신문고는 쫓겨져 소리도 강강하오.

◇…어리둥절한 하루

서천골 수강신청 전산화 첫날, 만사 제치고 전산실에 갔던 獅형들 어리둥절.

바로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잘못 입력되어 에러가 난데다, 제대로 실행된 컴퓨터도 적어 몇시간씩 기다리는 사태들이 발생하였다고.

다행히 다음날부터는 제대로 작동되었다지만 이미 상한 獅형들의 감정과 잃어버린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될 지.

◇…껍과 고추가루

요즘 서천골 獅형들의 '청결'감사가 한창이라고. 다른이건 겉으로 청결해 보이는 캠안쪽에 이물질이 붙어있어 獅형들이 일일이 검사해야 물을 마실수 있다는것.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아주머니./ 학생들과 좀더 친숙해질수 있는 방법은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주시는 것이 아닐런지요.

◇…족보가 뭔지

부러나게 집안으로 뛰쳐들어가 다락을 들추는 獅형있어 노트쟈 무슨 사연인가 들어보니.

기말고사 족보(?)를 구하다 못해 집안에 있는 족보라도 찾아서 보려고 그랬다는 獅형의 말에 눈쌀만 찌푸려지는 구려.

소위 상아탑 속의 '지성인'이라 일컫는 獅형들이 한낱 요행수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되겠소.

◇…이름이 아까워!

저 윗쪽의 군인아저씨들이 '율곡사업'이라하여 최근 10년간 군의 초현대화를 추진하였다는데…

알고보니 에어올뜨, 로보캅 살 돈들이 5·6공 군사정부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들어온 무기가 없다고.

군인아저씨들! 노트쟈 귓가에 허울뿐인 '율곡사업 운운하고 뜬것하는 행태'아신 율곡선생 통곡소리 쟁쟁하구려.

"개혁연막탄에 찢기운 신문고"

'표적수사'와 '표적감사'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어느새 1백일이 지났다. 지난 1백일 동안은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작업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통쾌하게 보냈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는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한 사건을 제공했고, 그것은 픽션이 아니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 작업은 사정에 불과하며 그 사정이란 것이 원칙없이 형평과 공정을 잃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나왔다. 박철언, 박태준 의원의 구속사건에 이르러서는 청와대와 사정당국이 결단코 부인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이례성과 특별성이 '표적수사'라는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적수사'상고는 할 수 없지만 본교 부속병원의 '사정당국'은 진료비 착복이라는 '혐의'를 잡고 서병희(산부인과)교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본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13일자로 서 교수를 파면조처했다. 학교측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배임, 횡령, 의료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부터 '체외수정에 관한 윤리 요강'을 어긴 점 등의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11개항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서 교수의 파면은 너무도 당연하며 병원과 재단은 제 살을 도려내면서까지 참의료 실현에 앞장섰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그 이면을 면면히 살펴보면 엇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진료한 자체 감사이다. 조직의 잘못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인데도 표면적인 의료사고 일 수 있는 상황에서 병원측이 앞장서 감사하고 서 교수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채 서둘러 언론에 공표한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음은 행정의 문제이다. 과거 일부 교수가 실정법을 위반해 보도기사가 신문에 나도 병원측은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의료학생회의 주장이다. 검국 이러한 이유로 병원측의 감사는 그간 의료민주화에 앞장서 온 서 교수에 대한 '표적감사'가아니냐는의혹을낳았다.

▼정치인의 사정이 국민의 환영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서 교수의 파면은 누구의 지지도 끌어내지 못했을 뿐더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이제 그 상처가 치료될 수도 있고 완치가 불가능한채 영원히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기로에 섰다. 교육부의 파면 처분 취소로 현재 논점은 학교측의 태도에 쏠려졌다. 그 눈길은 의대학생과 부속병원의 갈등증폭을 염려하는 애정어린 관심이다. 학교측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해본다.

(김중석 記者)

교 내 단 신

▲문리대 각 과 1, 2학년 정·부대표들의 모꼬지가 오는 23일과 24일에 용문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리대 부학생회장의 주최로 가질 이번 모꼬지는 상반기 평가와 방학 계획, 그리고 학년학생회 강화에 관해 논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는 여름방학중 행사로 지리산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학생회 일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여행은 올해 처음으로 계획되어 7월 중순쯤 갈 예정이며 환경학과 학생이면 누구든 동참할 수 있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기말시험기간을 맞이하여 3일부터 23일까지 2층 제2열람실을 잘야개방 한다.

철야이용자들은 자정이후 교수회관측 제2열람실 전용출입문을 이용해야 한다.

▲수원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는 8일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1학기동안의 전체별, 분과별 동아리평가 ◇지난 한총련 출범식의 보고와 평가 ◇6월말에 있을 농활참여와 농활주체에 대한 논의 ◇앞으로 있을 8·15 범민족대회에 대한 참가여부 등이다.

한편 6월8일 개최하기로했던 종교분과 통일세미나는 준비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2학기로 연기되었다.

한총련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책 발표와 관련한 한총련 대변인 성명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등 3부 장관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총련에 대한 정부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총련은 중앙의 긴급한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대외에 발표한다.

1. 우선 29일 도심지 투쟁으로 인해 본의아니게 생업의 지장을 받은 서울시민들과 경찰의 폭력진압과 학우들의 부상, 최루탄 난사등로 다소간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점에 대해 한총련은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2. 정부당국이 군사독재시대의 구태를 벗지못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탄압방식을 통해 한총련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첫째, 광주학살을 배후에서 조종한 미국의 공개사과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점을 희석화시키고 국민시각을 다른데로 돌려보려는 고도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며, 둘째, 학생운동의 질적도약과 대중적 발전을 시작에서 부터 가로막아보려는 술책이다.
3. 이에 한총련은 5월론제의 쟁점을 희석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의도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을 끈기있게 전개할 것이다.
4. 앞으로의 활동방식에 있어서는 평화적 원칙을 고수하되 공안당국이 계속적으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탄압을 감행해 올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반드시 보여주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5. 통일운동과 관련해서는 정부당국이 계속해서 5.6공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권위적 자세로 창구단일화를 고집할 때에는 그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단, 정부 당국이 남,북, 해외청년학생의 단일조직,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가지며 한총련의 합후 대북접촉에 있어서도 정부당국이 나서서 교류를 주선하고, 남북 청년학생 회담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방식과 절차, 장소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6. 한총련은 6월 10일, 민중한마당 행사때 29일 투쟁당시 경찰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사진을 공개할 것이며 29일 현장상황을 중언하는 시민의 제보도 접수하여 공개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한총련은 지도부에 대한 불법, 부당한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한다. 덧붙여 한총련은 전국 백만학도의 견의를 한데모아 지도부를 지켜내고 한총련 조직을 사수할 것이다.

그리고 6월항쟁 계승투쟁, 6.12일 남북청년학생 자매결연성사를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투쟁을 계획대로 힘있게 전개할 것이다.

1993. 6.2

한 국 대 학 총 학 생 회 연 합

교내장학금 신청

'93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금 수혜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중 이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1993년 6월 1일-18일(금)까지
2. 신청서류:장학금 신청서 1부(단대비치)
3. 신청구분:각 단과대학 및 학과사무실 (우수, 모범)
4. 장학생 선발후 등록절차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하며 등록기간내에 서울신탁은행 본점 및 지점, 외환은행(구내출장소)에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5. 복학생 신청절차
   (휴학전 등록을 하고 휴학하여 93학년도 1학기에 복학한 학생에 한함)
   입시, 보훈, 경희가족 장학금 수혜대상자중 93학년도 복학생은 학생처에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가. 신청기간:7월 5일-9일(금)까지
   나. 신청서류
   1)입시장학: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통
   2)보훈장학:국가유공자 자녀 증명서(수원 보훈지청 발행),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각1통
   3)경희가족장학:보호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각1통
   *위 기간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시는 '93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제사한 상황은 수원캠퍼스 학생처(☎2021~2)로 문의 바랍니다.

수원캠퍼스 학생처장

제6차 하계 국외연수

본교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중심으로 대만의 문화유적 답사 및 자매대학인 『대만 문화대학』과의 학술 및 문화행사를 공동을 개최함으로써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자매대학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금번 행사 대상국으로 대만을 선정하였습니다.

1. 연수국가:대만
2. 연수지역:타이페이-하련-아류-타이페이
3. 연수기간:1993년 8월2일(월)-8월7일(토) (5박6일)
4. 연수비용:400,000원(여권발급비 제외)
5. 일 정:
   제1일 서울-타이페이
   제2일 타이페이(자매대학 방문 및 공동학술제)
   제3일 타이페이(자매대학 방문 및 공동문화제)
   제4일 화련(대리석 계곡,이비족 민속쇼 등등)
   제5일 타이페이, 야류(충현사, 고궁박물관, 야류해안관광 등등)
   제6일 타이페이-서울
6. 참가대상:경희대학교 가족 모두(대학원생, 학부생, 교직원, 교수 포함 30명 제한, 선착순 마감)
7. 신청기간:6월7일(월)-6월19일(토)
8. 신청배부 및 접수:동아시아 연구회(서대문관 6층, 627호)
9. 신청방법:참가신청비 100,000원과 참가신청서 제출
   (추후제출서류:여권, 재직 및 재학증명서, 사진 3매(여권용))
   (여권 미소지자는 참가신청시 여권 발급 신청바람)
10. 문의전화:(02)961-0216, 0120

동아시아 연구회

차량 출입증 신청

수원캠퍼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승용차에 학교 차량출입 스티커를 발부 하고자 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1993년 6월7일-6월18일(금)까지.
2. 신청서류:
   가. 본인 소유 차량: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학생증 사본 1부.
   나. 가족 소유 차량: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주민등록증 1부, 학생증 사본 1부.
3. 접 수 처:학생처 취업복지과 (학생회관 2층 ☎2021-4번)
4. 신청자격:수원캠퍼스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 및 대학원생중 승용차를 보유하여 운행중인자.

※위 기간에 스티커를 발급 받지 않는 차량은 정문에서 통제하오니 양지하시어 기간내에 해당자는 진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캠퍼스 학생처장

미국인 TOEFL 및 회화

1. 무료시험강좌
   가. 기간:6월7일~11일
   나. 시간:07:30~20:00
2. 정규 영어회화
   가. 기 간:매주 월~금
   나. 시 간:06::30, 07:30, 13:00, 16:00 17:00, 18:00, 19:00
   다. 수강료:8주 10만원
3. 문의처:969-0050, 967-1291

동서 외국어 학원